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아이들 볼모로 잡아

비정규직 자녀 장학금 배제 인권위 차별 시정 촉구 ... 불법파견 소송 취하 압박 아이들 이용

범죄집단 포스코 자본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아이들을 볼모로 불법파견 범죄 은폐와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하고 있다.

포스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차별 배제당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포항과 광양 11개 업체 347명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1월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차별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전달했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불법파견을 사용했다고 말한 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했다고 배제당하고 있다”라면서 “시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란 자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런 차별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차별 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진정서 접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며 “국가기관이 아이들 장학금으로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정용식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을 시정해달라고 법에 호소했더니 포스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든다며 아이들의 학자금으로 장난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정용식 지회장은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하면서, 너희 자식들까지 차별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대놓고 공문으로 소송에 참여하니까 학자금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인가”라고 통탄했다.

정용식 지회장은 “포스코는 불법파견 판결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녀들의 학자금을 볼모로 다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포기를 종용한다”라며 “대한민국에서 하청노동자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 빨리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올해 6월 24일 포스코, 광양과 포항 협력사 상생협의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에 공동 서명하며 ‘포스코원·하청 임금격차와 복리후생 차별 해소 공동 실천’을 발표했다. 이어 7월 23일 포스코와 광양·포항 협력사 상생협의회 소속 사내하청 업체 공동으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했다.

포스코가 기금 자산 대부분을 출연했고, 각 사내하청업체는 노동자수에 비례해 출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금 사업으로 장학금, 근로자 생활원조 등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금을 통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아이들에게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실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방문 노동자, 중대재해 · 성희롱 위험 노출

방문 노동자 안전실태 증언대회 ... “이윤 얻는 자가 위험관리 책임져야”

가전제품을 수리·대여하고 유지 관리하는 가정 방문 서비스 노동자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중대재해, 근골격계질환, 성희롱 등 갖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는 11월 3일 오전 노조 회의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수리 노동자 사망사고로 본 방문 노동자 안전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토론회에서 방문 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실태와 블랙컨슈머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발표했다.

증언자로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엘지전자지회, 하이엠솔루션지회,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증언대회 참석 조합원들은 ‘위험을 생산하는 자와 이윤을 얻는 자가 위험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대전제 아래 방문 서비스 노동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안전보건 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9월 28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지회 윤 아무개 조합원이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드럼세탁기를 수리하다가 감전돼 숨졌다. 관련해 증언자로 나온 김문석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지회 양천센터 분회장은 ▲제품 대형화·인

력 부족 ▲과도한 실적압박 ▲열악한 작업 현장이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석 분회장은 “2인 1조였다면 100kg이 넘는 세탁기를 옮기는 일이 수월했을 것이고, 감전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중대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 2인 1조 작업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석 분회장은 “과도한 업무와 사측의 실적압박으로 사실상 무리한 작업을 강요받는 상황 역시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가전 방문 서비스 노동자들은 이외에 ▲에어컨 실외기 수리 등 고소작업 낙상 위험 ▲무거운 수리 장비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소비자가정 애완동물에 의한 위협 ▲부실한 안전교육 ▲약품과 분진으로 인한 피부·호흡기 질환 ▲고객 응대로 인한 감정노동과 성폭력 ▲교통사고 위험 ▲비노기질환 등 다양

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진희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수석 부지회장은 “작업 중 어쩔 수 없이 고객에게 화장실 사용을 부탁하면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어 화장실 이용이 쉽지 않다”라면서 “노동자가 동선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물 섭취를 참는 식으로 버티다 보니 방광염, 신우신염 등 비노기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김진희 수석은 “비노기질환 또한 집단산재 신청에 포함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진희 수석은 “많은 고객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매니저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고객에 맞춰 감정을 조절해야 할 때가 많다.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폭행, 성적 피해를 봤을 때도 회사의 보호 체계 없어서 온전히 개인이 감내하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엘지케어솔루션 노동자들은 점점 중 남성 고객이 매니저 곁에 밀착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매니저에게 업무와 연관이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진희 수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작업중지권을 특수고용노동자인 방문 점검 노동자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전문가 역할로 참석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위험을 생산하는 자, 이윤을 얻는 자가 책임지는 것이 노동안전보건의 대원칙” 이라면서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 기업이 포괄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포괄적인 책임’ 은 사업주가 법령에 적힌 나열식 안전조치 사항 수준을 넘어서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수행 가능한 수준에서 안전·보건 조치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영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포괄적인 책임 관점에서 안전보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류현철 소장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라는 법적 지위 문제도 있다. 기존과 다른 노무 계약 관계가 등장하는 배경은 기업의 이윤 때문이다.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어디서는 정규직, 어디서는 특수고용이 되는 등 고용형태가 다르다. 탈법적이고 왜곡이다. 이런 문제를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라고 꼬집었다.

류현철 소장은 “현실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결이 나오자본이 이행하지 않는다” 라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노동자의 조직된 힘이다. 노동조합의 존재가 가진 방문 서비스 노동자에게 대단히 소중한” 라고 강조했다.



정신계승
전태일열사

2021 전국노동자대회

2021.11.13 9#21-서울노조

평등사회로 대전환!

법·평등 세상을 바꿔보자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노동권**을!
모든 민중에게 **주거, 교육, 의료, 돌봄, 교통권**을!
양경수 위원장 석방! 민주노총 탄압 분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